2020. 10. 12 486호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스타트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경기활성화정책 추진

사회·복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숙자에게 임시 숙박시설 제공
실업급여 부정 신청·수령 급증으로 피해방지책 모색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맞춰 지역단체의 새로운 지역활동 지원

도시계획·주택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에 도심 임대주택 지원

정보·기타 '코로나19'를 계기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신희완
	유진경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하노버	이희재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뉴욕	윤규근
	이수진
	이정근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영준
	강기향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상파울루	김현아
스톡홀름	문선우
	허윤회
바르셀로나	진광선
	박정수
싱가포르	이은주
런던	정기성
비엔나	안병선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자카르타	박재현
도쿄	박재호
오사카	권용수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김용훈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시드니	정용문

스타트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경기활성화정책 추진

인도 델리 NCT[1] / 산업·경제

인도 델리 NCT 정부는 경제활동 제한 및 봉쇄조치의 단계별 완화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활성화정책을 시행할 계획. 정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회복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 구인·구직 웹사이트 개설, 건설노동자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도모

배경 및 목적

○ 인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제한 및 봉쇄조치를 단계별로 해제하고 있음

- 올해 상반기의 생산·소비 등 경기 회복속도가 둔화되어 경제활성화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최근 영화관, 체육관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 부문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재개

○ 경기침체와 함께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고용시장의 한파 속에서 중앙정부 역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

-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의 개학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만, 각 지방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 델리 NCT 정부 역시 휴교령을 10월까지 연장

○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고되고, 장기적으로 백신 개발 또는 항체보유율 상승에 따른 집단면역 등을 기대하는 상황

주요 내용

○ '코로나19'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산업부문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출범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경제활성화 로드맵을 수립 중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 지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사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진행될 예정으로, 다른 나라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

○ **인도 스타트업의 주요 도시에 해당하는 델리 지역에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스타트업 신규 발굴 및 육성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 2019년 하반기의 미국 인도인기업가협회(The IndUS Entrepreneurs) 보고서에 따르면, 델리 수도권 지역은 세계적인 스타트업 허브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 이미 스타트업 기업이 7천 개를 돌파
- 첫 단계에서는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스타트업 지원계획 초안이 작성될 예정으로, 정보기술 등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타트업 모델을 제시할 계획
- 금융·재정 지원 중심 정책을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 부문의 외연 확대를 추진

○ **이외에도 델리 NCT 정부는 구인·구직 웹사이트 개설, 피해 직종 지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등 다방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

- 일자리를 연결해주기 위해 'Rozgar Bazar'라는 취업정보 웹사이트를 7월에 개설하였고,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8월 중 약 90만 건의 채용공고가 등록
  - 최근 이주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지역으로 복귀함에 따라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건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강화
  - 등록된 약 4만 명의 건설업 종사자에게 두 달 동안 5천 루피(약 8만 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교육 또는 결혼 등을 위한 금융 서비스도 부가적으로 제공
- 전기자동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등록비 감면,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신규 차량 구입 시 최대 15만 루피(약 240만 원)를 8월부터 지원
- 상반기 세수(稅收)는 378억 루피(약 5,950억 원)로 전년도 579억 루피(약 9,113억 원) 대비 65% 수준에 불과하여 지역 내 세수 부족에 대응할 계획도 마련 중

정책 평가

○ **인도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도 대비 23.9% 감소한 가운데 경기부양책에 따른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타격으로 인해 방역보다는 경제회생에 주력
- 최근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인도 중장기 성장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 경기 회복 정책을 제시

○ **신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및 전기자동차 분야 지원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

https://www.dailyo.in/politics/covid-19-delhi-government-arvind-kejriwal-economic-policy-rozgar-bazar/story/1/33490.html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to-soon-get-startup-policy-cm-meets-stakeholders/story-WtXZmwGYcgkzkZW8btfuMI.html

https://www.livemint.com/news/india/delhi-government-launches-electric-vehicle-policy-announces-incentives-of-up-to-1-5-lakh-11596796519572.html

https://www.theprint.in/india/governance/what-is-chunauti-the-rs-95-cr-govt-plan-to-boost-tech-start-ups-for-atmanirbhar-bharat/491626/

https://zeenews.india.com/india/delhi-government-sets-up-registration-camps-at-70-schools-for-construction-workers-gopal-rai-2305546.html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숙자에게 임시 숙박시설 제공

독일 베를린市 / 사회·복지

독일 베를린市는 노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에 처하자 유스호스텔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임시 숙박시설을 마련. 임시 숙박시설은 노숙자들에게 삼시 세끼 식사와 의료서비스는 물론 노숙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과 상담 또한 제공

배경

○ **베를린의 시민활동가들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노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호텔과 호스텔에 숙박할 수 있도록 베를린市에 지속적으로 요청**

- 베를린의 노숙자 수를 파악하고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자원봉사행사인 ‘베를린 연대의 밤(Nacht der Solidarität)’을 통해 베를린에 1,972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
- 올해 4월 말 캘테힐페(Kältehilfe)와 같은 노숙자를 위한 혹한기 긴급 숙박시설이 폐쇄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노숙자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

주요 내용

○ **‘코로나19’ 발생 이후 베를린 정부와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들은 노숙자를 위해 임시 숙박시설을 마련**

-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는 난민을 주로 돕는 사회적 서비스 기업인 타마야(Tamaja), 노숙자를 돕는 비영리단체인 게베보(Gebewo), 교회에 소속되어 빈민을 돕는 자원봉사단체인 베를리너 슈타트미시온(Berliner Stadtmisstion) 등을 말함
-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장소에의 접근이 제한되는 기간에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 삼시세끼 식사와 의료서비스, 사회적 돌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
  - 현재 의료인들이 일주일에 3회 시설에 와서 노숙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 노숙자들은 국적도 상관없고 이름도 밝히지 않아도 되며, 사회적·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숙박시설에 머물 수 있음

○ **베를린 사회행정부(Senatssozialverwaltung)는 단순히 잠자는 곳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노숙자들이 노숙생활에서 벗어나 사회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이를 위해 사회단체의 사회복지사들이 노숙자와 상담과 대화를 이어나감
- 상담자들은 삶의 변화 의지를 보이는 노숙자들을 파악하여 이들이 적절한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 구청에 의견을 전달

○ **올해 4월 1일 베를린 티어가르텐(Tiergarten) 근처 클룩슈트라쎄(Kluckstraße)에 위치한 유스호스텔을 처음으로 노숙자 임시 숙박시설로 이용하기 시작**

- 200여 개의 객실이 있으며, 각각의 방은 최대 2명이 이용 가능
- 20개의 객실이 있는 1개 층 전체는 여성 노숙자 전용으로 운영

○ **이후 스토코워슈트라쎄(Storkowerstraße)에 100여 개의 객실이 있는 임시 숙박시설과 레터슈트라쎄(Lehrterstraße)에 106개의 객실이 있는 임시 숙박시설이 추가로 제공**

- 한편 7월 31일부터 클룩슈트라쎄의 임시 숙박시설은 다시 유스호스텔로 운영됨

정책 평가 및 의의

○ **현재까지 400여 명의 노숙자가 임시 숙박시설을 이용**

- 노숙자들은 관리인(하우스 가드)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숙박할 수 있음
  - 노숙자들은 길거리에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어서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면역체계가 약화된 상황
- 市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노숙자들은 지난 몇 주간 건강이 회복되었고, 일부는 미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함

○ **이 정책은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프로그램**

- '코로나19'로 인해 호텔과 호스텔과 같은 숙박시설 운영이 어려워지고 또 직원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함

○ **임시 숙박시설을 통해 노숙자들이 다시 사회시스템 안으로 통합되었는지에 대해 베를린 사회과학센터(Social Science Center Berlin)에서 평가를 진행 중**

https://www.berlin.de/sen/ias/presse/pressemitteilungen/2020/pressemitteilung.967896.php

https://www.rbb24.de/politik/thema/2020/coronavirus/beitraege/obdachlose-jugendherberge-hostel-breitenbach-berlin.html

https://www.tagesspiegel.de/themen/reportage/200-menschen-in-coronavirus-obhut-das-grosse-berliner-obdachlosen-unterbringungs-wunder/25743588.html

홍 남 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실업급여 부정 신청·수령 급증으로 피해방지책 모색

미국 하와이州 / 사회·복지

미국 하와이州는 올해 지급된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중 다수 사례가 부정 신청된 것임을 확인. 특히 불법 신청 사례 중 상당수가 타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 실업급여 수령자가 급증하면서 허위 신청 및 부정 수령 사례도 늘어나자 州정부는 실업급여 불법 청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도용 및 불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

배경 및 목적

○ **하와이州 노동산업기구(The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DLIR)는 지난 3월 25일 시작된 州 전역에 대한 '셧다운' 이후 7월 22까지 실업급여로 23억 4,995만 2,775달러가 지급됐다고 밝힘**

- 3월 25일 '코로나19'로 인한 제1차 '셧다운' 선언[1] 이후 4월부터 본격화된 팬데믹 실업급여 보조(The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프로그램[2] 신청자의 약 92%에게 지급이 완료된 상황임
- 미국 노동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하와이州의 실업률은 22.6%를 기록해 같은 시기 미국 州 중에서 실업률 2위라는 오명을 얻음.[3]

○ **이 같은 높은 실업률 문제 해결을 위해 州정부는 '팬데믹 실업급여 보조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불법 신청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州정부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됨[4]**

- 실제로 2020년 7월 22일 기준 25만 8,847건의 신청 사례 중 불법 신청 등으로 의심되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된 신청 사례는 8만 6,626건에 달함
- 또한,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실업급여 신청 사유 등은 유효하지만, 업무 처리를 위해 일정 기간 대기 중인 신청 사례가 9,676건으로 확인됨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2차 하와이州 전역에 대한 '셧다운'은 2020년 8월 8일부터 발효되었음
2)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령할 수 있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실업과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 업무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음을 증빙해야 함. 그러면 최대 39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3) 2020년 5월 기준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州는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州(25.3%)이고 그다음으로는 하와이州(22.6%), 미시간州(21.2%), 로드아일랜드州(16.3%), 매사추세츠州(16.3%), 캘리포니아州(16.3%) 순임
4) 하와이州 노동산업기구 부국장은 "현재 州정부는 다수의 실업급여 불법 신청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州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에 앞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불법/부당/부정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힘

- 그 외에도 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반려된 신청 건수가 1만 7,222건이고, 이미 신청 및 지급 처리절차가 완료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15만 8,356건에 달함
- 이는 4월 4일 본격적인 실업급여 신청 개시일부터 7월 22일까지의 집계 수치임
- 더욱이 8월 대규모 실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州정부는 향후 추가 실업급여 예산을 편성할 방침

○ **8월 현재 州정부는 지속적인 실업상태로 인해 추가 실업급여 지급이 시급한 주민 수가 최소 8만 5천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州 노동산업기구는 이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과 관련한 불법 사기 사건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

주요 내용

○ **州정부는 팬데믹 실업급여 보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개인정보 도용 등 피해 확인과 피해 신고를 위해 2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 실업급여 신청 관련 개인정보 도용 여부 확인은 홈페이지 'pua.hawaii.gov'에서 하고, 피해사례 신고는 홈페이지 'www.identitytheft.gov'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즉, 피해 확인과 신고 및 피해자 구제를 이원화해 전담키로 함

○ **특히 州 노동산업기구는 불법 청구 양상이 점점 지능화되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

- 州정부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불법 신청 사례로 ① 실업상태가 아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 ② 실업급여는 실업 직전 직장의 급여명세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과거에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더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신청한 경우, ③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홈페이지에 등록해 실업급여를 불법 신청한 경우, ④ 교도소 수감자 또는 양로원 거주자 등 일부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이들의 신분증 번호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신청한 뒤 해당 은행계좌 또는 은행 신용카드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고 시도한 사례, ⑤ 원 직장에 복귀하거나 새 일자리를 얻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청구한 사례, ⑥ 신청자의 이름 및 신분증 번호, 거주지 주소와 휴대폰 번호, 퇴사일과 퇴사 사유 등의 정보를 위조한 사례 등을 공개

○ **더욱이 州정부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실업급여 불법 신청 사례 가운데 개인정보를 도용해 타인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으려고 시도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고 밝힘**

- 실제로 州정부는 2020년 7월 15일까지 1억 2,534만 7,758달러 규모의 실업급여 불법 청구 사례를 적발. 하지만 이미 실업급여 불법 신청자에게 359만 8,789달러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5)]

○ **이 같은 불법 신청 및 부정 수령 관련 개인정보 도용 사건에 대해 州정부가 신원 도용 시기 및 경위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州정부의 입장**

- 이 때문에 신원 도용 및 실업급여 부정 신청에 따른 피해 여부는 각 개인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는 점에서 州 노동산업기구는 피해 여부를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확인하도록 권장

https://www.civilbeat.org/beat/honolulu-buys-10-unit-building-for-affordable-housing/

http://www.honolulu.gov/housing/affordable-housing.html

https://www.locationshawaii.com/learn/affordable-housing/affordable-housing/

https://www.hawaiihomelistings.com/bill-7/

https://dbedt.hawaii.gov/hhfdc/files/2020/02/State_HHPS2019_Report-FINAL-Dec.-2019-Rev.-02102020.pdf

https://dbedt.hawaii.gov/hhfdc/files/2019/06/Affordable-Housing-Inventory-05-31-19-Statewide.pdf

https://www.newsbreak.com/hawaii/honolulu/news/1608185307579/honolulu-buys-10-unit-building-for-affordable-housing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

5) 州 노동산업기구 부국장은 "현재 州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청구 사례를 관리 감독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라면서 2개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도용사례 확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힘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맞춰 지역단체의 새로운 지역활동 지원

일본 교토市 / 사회·복지

교토市는 ‘코로나19’로 지역단체의 활동이 중단·연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지역활동이 어떠한 형태로든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염예방대책이나 지역단체의 새로운 활동 방법·사례를 제시한 ‘새로운 지역활동 스타일’을 작성·소개하는 한편,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 실시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지역단체의 활동이 중단·연기되거나 최소한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단체 활동이 일단 중단되면 좀처럼 이를 재개하기 어렵고, 지금까지의 활동으로 이룬 구성원 간의 교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지역활동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 이에 교토市는 지역단체가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지역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염예방대책이나 지역단체의 새로운 활동 방법·사례를 제시한 ‘새로운 지역활동 스타일’을 작성·소개

○ 또한, 市는 기존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비대면 활동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수단 도입을 지원

‘새로운 지역활동 스타일’의 주요 내용

○ ‘새로운 지역활동 스타일’에는 공통 감염예방대책, 활동별 감염예방대책, 우수 사례, 도입 지원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市는 이를 市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

○ 공통 감염예방대책은 ① 밀폐·밀집·밀접을 피하는 것, ② 손 씻기·소독·지역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밀폐 처리와 같은 위생대책, ③ 마스크 착용, ④ 집과 회의 및 모임 장소에서 건강상태 체크·체온 측정 등 건강관리, ⑤ 회의 및 모임 참가자 파악 등임

○ 활동별 감염예방대책과 우수 사례

- 지역활동 운영

- 집회·총회·임원회의 등은 시간 단축을 위해 자료를 사전에 나눠주고, 참가인원에 따라 개최장소 규모를 달리함
- 또한,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마이크와 같은 장비를 사용해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
- 회의 및 모임 개최횟수 최소화 및 모임 장소 규모 확대, 서면의결, ICT 수단(Zoom 등) 활용, 정보공유수단 디지털화(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LINE 등을 활용해 동시에 정보전달·공유 시행)와 같은 대책 시행

• 교류·친목 활동
- 참가인원이 많으면 행사를 나눠 참가인원을 조정하고, 마이크를 활용해 큰 소리가 오가는 상황을 예방
- 사람과 사람 간의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과를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불필요한 대화를 최소화하는 대책 필요
- 비말(飛沫) 감염이 우려되는 프로그램 제외

• 운동을 수반하는 활동
- 접촉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활동시간 축소 검토
- 그룹을 나눠 참가인원을 분산시킴으로써 사람 간 밀집을 최소화

• 돌봄 활동
-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화 등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만나야 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나 손 소독을 꼼꼼히 하는 것이 필요

지역활동 지원방안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 지역 자치를 담당하는 주민조직, 자치회, 각종 단체 등이 감염예방대책을 마련해 실시하는 지역활동 사업을 대상으로 감염예방대책 관련 비용의 5분의 4를 지원(상한액은 10만 엔)
- 축제 개최 관련 감염예방대책으로 제균(除菌) 스프레이 및 마스크 구매 비용, 정기총회를 개최할 때 밀집을 피하려고 넓은 회의장소를 빌리는 데 든 임차료, ICT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료와 자료비의 5분의 4를 지원한 사례 있음

○ **ICT 수단 도입 지원**

•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는 ICT 수단 도입을 검토하는 지역단체 등에 ICT 수단 도입·운용 매뉴얼 작성이나 관련 강좌 지원
-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애플리케이션(LINE 또는 Zoom 등) 도입·운용 및 지역활동 사례집을 작성해 지역단체에 전달하고, 출장교육도 실시

https://www.city.kyoto.lg.jp/bunshi/page/0000273284.html

https://www.city.kyoto.lg.jp/bunshi/page/0000272338.html

https://www.city.kyoto.lg.jp/bunshi/page/0000268363.html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에 도심 임대주택 지원

미국 하와이州 호놀룰루市 / 도시계획·주택

미국 하와이州 호놀룰루市는 최근 와이키키 해변 등 도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을 市 예산 400만 달러로 매입해 중위소득[1] 50~60% 수준의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저가 임대주택 공급 지원사업을 시작. 市는 주택 규모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소 7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로 정했으며, 원룸 또는 방 1~2개와 주방, 욕실, 화장실이 포함된 주택을 공급

배경 및 목적

○ **하와이州는 미국에서 방 2개짜리 주택 임대료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 비영리단체 '전미저소득주거연합'(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에 따르면, 하와이州에서 방 2개짜리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시급으로 38.76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와이州 내에서는 오아후섬이 41.54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카우아이섬(36.17달러), 빅아일랜드섬(27.48달러) 순으로 나타남. 이는 연평균 소득이 8만 1,600달러가 되어야 하는 수준임
- 반면 하와이州 최저 시급은 10.10달러로, 방 2개짜리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3.8개의 정규 직업(full-time)에 종사해야 함[2]

○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市정부는 연 단위 소득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8만 212달러의 50~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임대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사업에 착수**

-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이 지난 7월부터 빠르게 진행 중

주요 내용

○ **저가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크게 한부모 가정을 위한 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등 두 가지 사업유형으로 나누어 시행 중**

1) 전체 가구 중 연 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소득으로, 사회구성원의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됨. 즉,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와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됨

2) 하와이 주택개발금융공사(The Hawaii Housing Finance Development Corporation)는 방 1개짜리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2019년 최저 시급 기준으로 주당 117시간을 근무해야 한다고 밝힘

○ 한부모 가정을 위한 주택 지원 사업

- 지난 2월 市는 호놀룰루 도심에 소재한 '모할라 마이'(Mohalra Mai) 빌딩을 매입해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월 700달러의 저가 임대주택을 지원해오고 있음
  - 모할라 마이 빌딩 입주대상은 한부모 가정이나 노숙자 가정으로 30세대가 입주함
- 市는 모할라 마이 빌딩 매입 및 개조를 위해 470만 달러를 투입. 각 주택 내부에는 소형 냉장고, 침대, 탁자 등이 구비되어 있음. 세입자들은 층마다 개방된 공용(共用) 주방과 욕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市는 해당 주택에 입주한 30세대가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라는 점에서 공용 부엌과 욕실 등을 활용한 공동생활과 공동육아로 한부모 가정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그림 1]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맥컬리 스트리트 754번지'의 저가 임대주택
(해외통신원 직접 촬영)

○ 중위소득 60% 수준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도 실시 중

- 올해 7월 25일 市정부는 호놀룰루 중심의 맥컬리 스트리트 754번지(754 McCully Street)에 10세대 규모의 다가구주택 내부공사를 완료했으며, 7월 말 현재 4세대가 입주함
  - 입주 신청을 한 가구는 100세대로, 이 가운데 소득수준 및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10세대를 선발해 입주를 지원
  - 市는 해당 다가구주택을 올해 5월에 약 400만 달러의 市 예산으로 매입해 방 1개짜리 주택 8세대와 방 2개짜리 주택 2세대로 구성. 각 주택에는 베란다와 부엌 및 욕실, 새 가전제품 등이 있음
- 市 소유 임대주택 관리 감독은 현지 부동산 전문업체 'Hawaii Affordable Properties, Inc.'[3]에서 담당하며, 월 임대료는 방 1개짜리 주택은 1,200달러, 방 2개짜리 주택은

1,500달러로 책정

- 호놀룰루 시장은 7월 25일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사업 관련 성명서를 발표
  - "'코로나19' 사태로 수천 명의 실업자가 발생함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https://www.civilbeat.org/beat/honolulu-buys-10-unit-building-for-affordable-housing/

http://www.honolulu.gov/housing/affordable-housing.html

https://www.locationshawaii.com/learn/affordable-housing/affordable-housing/

https://www.hawaiihomelistings.com/bill-7/

https://dbedt.hawaii.gov/hhfdc/files/2020/02/State_HHPS2019_Report-FINAL-Dec.-2019-Rev.-02102020.pdf

https://dbedt.hawaii.gov/hhfdc/files/2019/06/Affordable-Housing-Inventory-05-31-19-Statewide.pdf

https://www.newsbreak.com/hawaii/honolulu/news/1608185307579/honolulu-buys-10-unit-building-for-affordable-housing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

3) 하와이 임대주택 전문 관리업체 'Hawaii Affordable Properties, Inc.'는 하와이州 소재 임대주택 2,962세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州정부가 진행 중인 임대주택사업 전문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2020년 7월 기준 오아후(Oahu), 카우아이(Kauai), 마우이(Maui), 빅아일랜드(the Big Island) 등에 있는 州정부 소유 저가 임대주택 사업을 전담하고 있음

‘코로나19’를 계기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일본 고베市 / 정보·기타

고베市는 ‘코로나19’로 시민의 일상이나 행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디지털 전환 추진을 통한 일하는 방법 개혁’, ‘스마트시티 실현을 향한 데이터 연계 기반 추진’, ‘디지털 인재 육성·교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연계협정을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사(社)와 체결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배경

○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년분의 ‘디지털 변혁’이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고베市는 ‘일하는 방법 개혁’, ‘스마트시티 실현을 향한 데이터 연계 기반 추진’, ‘디지털 인재 육성·교류’, ‘어린이와 청소년 학습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연계협정을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사(社)와 체결하고 市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포괄연계협정의 주요 내용

○ 디지털 전환 추진을 통한 일하는 방법 개혁

-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식과 견문을 市 직원에게 소개하는 온라인 연수를 실시
-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재택근무 환경이나 재해 발생 시 업무연속성 계획(BCP) 구축 등으로 市 직원의 디지털 수단 활용을 추진

○ 스마트시티 실현을 향한 데이터 연계 기반 추진

- 스마트시티 실현을 목표로 한 데이터 연계 기반 검토
  - 일본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스마트시티 실현에 대해 조언을 해줌
- 마이크로소프트의 해외 법인과 연계해 해외 스마트시티 데이터 연계 기반 사례를 연구 조사하고, 市의 이상적인 데이터 연계 기반 개념을 구축
- 디지털을 이용해 市와 시민의 접점을 개선하는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관련 프로젝트를 실시

○ **디지털 인재 육성 및 인재교류**

- 시민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행정 서비스나 정책 마련,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 창출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사고(思考)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디지털을 활용해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 육성과 교류를 촉진
- 정책 수립이나 사업 창출에 인공지능(AI)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AI 비즈니스 스쿨을 市 직원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지원

○ **디지털을 활용한 어린이나 청소년 학습 지원**

- 가정학습을 보완하는 온라인 양방향 통신 등의 충실화 지원
- 어린이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디지털 수단과 효과적인 이용방법 제공
- 커뮤니케이션 교육수단으로서 챗봇(chatbot) 활용 가능성 검토

관련 정책 동향

○ **市는 일본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기업이나 단체와 협력해 업무효율을 높이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제공**

- 최근 '코로나19 건강 상담 챗봇', '특별 정액 급부금 신청현황 등 확인서비스',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공개 사이트 통합' 등을 개시

○ **市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혁신에도 이바지하고자 市의 대책내용을 깃허브(GitHub)에 오픈 소스로 공개**

- 市는 기업이나 단체와 협력해 추진하는 대책, 즉 구축한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 시스템 설정 등을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인 깃허브에 오픈 소스로 공개
  - 이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베市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https://www.city.kobe.lg.jp/a05822/292356629182.html
https://www.itmedia.co.jp/enterprise/articles/2006/08/news087.html
https://www.itmedia.co.jp/news/articles/2006/04/news131.html
https://www.city.kobe.lg.jp/documents/34652/microsoft.pdf
https://www.city.kobe.lg.jp/documents/34652/setsumeisiryou.pdf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486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0년 10월 12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